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 환자가 행복한 삼성서울병원



미래 의료 선도를 위한 첨단 지능형 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의 IT인프라 인증(HIMSS INFRAM) 최고 등급인 7단계를 '세계 최초'로 받아, 세계 최고 수준 '첨단 지능형 병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HIMSS는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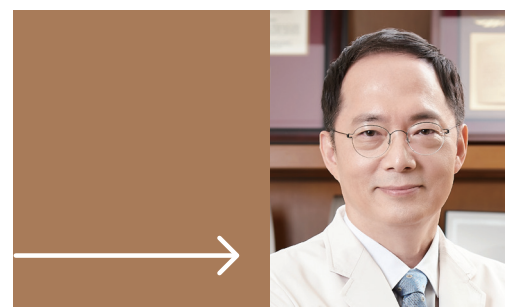
삼성서울병원은 고객의 진료 예약 및 변경 편의를 높여주는 서비스 '보이는ARS', 입원 수속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입원수속서비스', 병원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면 오늘의 진료 일정 및 순서를 알림으로 알려주는 'QR기반진료예약안내서비스', 진료 전에 모바일로 문진을 작성하면 병원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전달되어 진료에 활용되는 '모바일문진', 입원환자의 정보가 실시간 표출되어 진료에 활용되는 '전자침상카드', 인퓨전펌프 등 이동형 의료기기의 실시간 위치확인을 통해 효율적 사용을 돕는 '이동자산위치관리' 등의 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료계 최초 ESG 경영 본격화, 수열에너지로 탄소 중립 선도

항상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했던 삼성서울병원은 뉴노멀 시대에 맞춰 발 빠르게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보건관리팀을 신설하여 산업·소방, 전기·기계, 위생 등 분산된 안전 분야별 인력과 업무를 원장 직속으로 일원화해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운영을 통해 윤리·준법 경영을 위한 규정과 책임 사항을 검토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내년까지 수열에너지와 지역난방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기 사용량의 약 30% 절감(약 1,800세대가 1년간 사용하는 전기량과 동일한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 병동으로 확대 시 연간 약 65톤의 의료폐기물을 감축과 처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중심 의료 문화'의 가치를 대한민국 의료계에 처음 제시하고 구축하였다.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 슬로건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가치에서 환자 행복이라는 가치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여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서 미래 의료를 선도하고, 의료계 최초 ESG 경영을 본격화하며, 유익하고 신뢰도 높은 건강 정보로 환자 행복을 위한 삼성서울병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은 최고의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종합병원 부문 7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환자가 행복한 병원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와 사회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